

아동학대 24시간 상시 대응 나선다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4명까지 증원 상시체계 구축해 즉각 대응

전주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전담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기존 5명에서 14명까지 증원하는 등 본격적인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에 나섰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현장 최일선에서 아동학대 대응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필요에 따라 응급 조치와 일시 보호 등 조치를 취하고,

현장 조사 후 절차에 따라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피해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 대상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업무도 맡는다.

시는 이번 증원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2인 1조로 편성해 24시간 상시 체계로 운영함으로써 야간 및 공휴일에도 아동학대 사건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학대피해아동 등의 사례관리 전담기관인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했으며, 아동학대 신고 증가에 대비, 아동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

중이다. 특히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0~2세 영아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전문 위탁가정 3세대도 선정했다.

시는 어린이집 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 및 학대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SNS 등 매체를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9월에는 전주교육지원청, 완산·덕진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주민센터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등 4개

소를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학대아동에 대한 피해상담, 신체·정신적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민간 인프라도 구축했으며, 전주시방검찰청, 전라북도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일 것"이라며 "모든 아이들이 단 한 명도 학대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갖추고, 야호생태숲놀이터, 야호예술놀이터, 야호책놀이터, 야호학교, 야호부모교육의 야호 5대 플랜을 중심으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행복을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2050 탄소중립 실현' 시민 동참 추진

전주시, 2024년까지 22만명 대상 시민인식 전환교육

오는 2050년까지 실질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갈 것을 선언한 전주시가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탄소저감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는 2024년까지 시민 22만 명을 대상으로 단계적 시민인식 전환교육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 연말까지 3만 명을 목표로 탄소중립 시민교육 진행을 위한 강사 육성 및 리더 역량 강화 등 1단계 교육을 시작해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교육하기로 했다. 교육은 영유아, 초·중·고·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교육과 종교단체, 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분야별 교육으로 나눠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전북은행 및 농협 등 금융권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앞장서는 시민들에게 금리우대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종교계와 공공기관, 각종 민간단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시민 자발적인 실천 활동을 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 과정에는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전주원도심교육공동체 ▲에너지전환시민포럼 ▲생태교통협의회 ▲도시계획협의회 등 6개 분야별 실행기구로 꾸려진 생태도시 민간협력기구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보태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시민들의 출자금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전주시민햇빛발전소를 올 연말까지 총 9곳까지 확대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 보전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시청사 및 시청 인근 사무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텃밭' 사 용하기 운동도 전개된다. 이와 관련, 시는 25일 시청사 인근 카페운영 대표자 20여 명과 함께 실천협약을 체결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정보문화산업진흥원 'XR 온다(ONDA) 세미나' 특강

영화 '신과 함께' 제작에 참여한 특수효과 전문가 관계자가 SF 영화의 핵심 기술 등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아우르는 가상융합기술(XR)을 소개하는 전문가 특강을 연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은 오는 26일 '2021년 XR 온다(ONDA) 세미나' 3회차 특강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역 내 XR 기반 메타버스와 실감온 콘텐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열리는 '2021년 XR 온다 세미나'는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함께 지역 ICT 기업 종사자와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4회에 걸쳐 추진된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급증... 전주시, 긴급대책회의 김승수 전주시장이 24일 전주시청에서 부시장, 완산·덕진구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신규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주시 공무원들, 도쿄올림픽 패러디 이색 홍보영상 '비젠티즌' 유튜브 공개

전주시 공무원들이 동물원, 동고사, 청연루, 가막 등을 유쾌하게 소개한 이색 홍보에 나섰다.

전주시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화제가 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을 패러디해 제작한 전주 홍보영상을 '비젠티즌(visionj)'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기존 전주시의 홍보영상과는 색다른, 코믹 버전의 홍보영상으로 전주시 공무원들이 직접 촬영에



참여했다. 이들은 생태동물원과 전라감영을 찾아 올림픽 양궁 2관왕인 '파이팅맨' 김제덕 선수를 패러디해 연신 파이팅

을 외치며 소개했으며, 동고사에서 네발자전거를 타며 배우여제 김연경 선수를 패러디했다.

또한 한옥마을 청연루에서는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딴 카타르의 무타스 바르심 선수 만큼이나 여유롭게 전주를 즐기는 모습을 담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번 영상에는 잘 알려진 전주 가막, 전주 막걸리 외에 MZ세대에게 핫한 감성술집들을 소개하는 등 야간관광을 홍보한다. /김윤상 기자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특별점검

전주시, 내달 16일까지 점검해 위반 업소 계도·영업정지 등 처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위생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한 가운데 전주시가 배달음식점의 위생상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시는 오는 9월 16일까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전주시역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시민들의 배달 주문량이 많은 중국요리와 피자, 족발, 보쌈, 김밥 등을 취급하는 업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식품 위생취급 여부 ▲냉동·냉장 등 온도 관리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시는 또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조리과정 중 마스크 착용 ▲사용하는 조리 기계·기구 살균·소독 ▲출입자 명부 관리 및 소독 환기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등도 지도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하고, 위생 상태가 심각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위생 점검을 통해 배달음식점의 위생 환경이 개선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단속은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조리 공간이 공개되지 않은 위생 사각지대에서 음식류를 조리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주문해 드실 수 있도록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